

2021 예술영재교육 전문학술지 운영 결과보고서

과제책임자 | 김 은 양

사업운영원 | 김 선 명

본 연구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연구물을 <2021 예술영재교육 전문학술지 운영>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1.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과제책임자

김 은 양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사업운영원

김 선 명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목 차

I. 서 론	1
1. 전문학술지 운영 필요성 및 목적	1
2. 전문학술지 운영 개요	4
II. 전문학술지 『예술영재교육』 발간	9
1. 『예술영재교육』 제5권, 제6권 발간 개요	9
2. 『예술영재교육』 제5권 발간 내용	10
3. 『예술영재교육』 제6권 발간 내용	13
III.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신규평가 신청	16
1.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신규평가 신청 개요	16
2.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신규평가 신청 내용	17
3.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신규평가 신청 결과	23
IV. 전문학술지 연계 국내 학술대회 개최	27
1. 국내 학술대회 기획	27
2. 국내 학술대회 실행	29
V. 결론 및 제언	34
참고문헌	36

표 목 차

<표 I -1> 『예술영재교육』 제5권 발간 추진 일정	4
<표 I -2> 『예술영재교육』 제6권 발간 추진 일정	5
<표 I -3>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추진 일정	6
<표 I -4> 2021 KRIGA 국내 학술대회 개요	7
<표 I -5> 2021 KRIGA 국내 학술대회 추진 일정	8
<표 III-1>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신청자격 확인서	18
<표 III-2>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체계평가 자체평가서	20
<표 III-3>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내용평가 항목별 배점	22
<표 III-4>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신규평가 세부 점수	23
<표 IV-1> 2021 KRIGA 국내 학술대회 개요	27
<표 IV-2> 2021 KRIGA 국내 학술대회 세부 일정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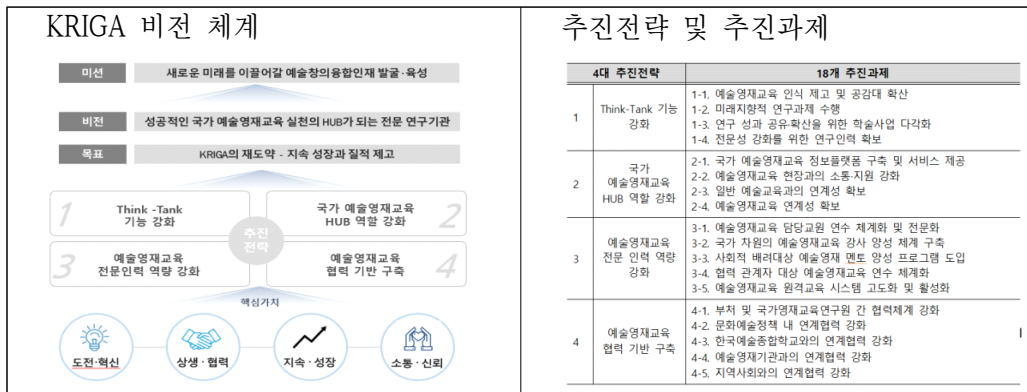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I -1]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중장기 발전방향 요약	1
[그림 I -2] 『예술영재교육』 제1권 ~ 제4권 목차	3
[그림 II-1] 『예술영재교육』 제5권 목차	10
[그림 II-2] 『예술영재교육』 제6권 목차	13
[그림 III-1]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평가체계	16
[그림 IV-1] 2021 KRIGA 국내 학술대회 전체 일정표 안내	29
[그림 IV-2] 2021 KRIGA 국내 학술대회 참여자 안내	30
[그림 IV-3] 2021 KRIGA 국내 학술대회 추가 Q&A 안내	30
[그림 IV-4] 2021 KRIGA 국내 학술대회 발표 1 (미술 분야)	31
[그림 IV-5] 2021 KRIGA 국내 학술대회 발표 2 (음악 분야)	32
[그림 IV-6] 2021 KRIGA 국내 학술대회 발표 3 (무용 분야)	33

I. 서 론

1. 전문학술지 운영 필요성 및 목적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은 국가 차원에서 예술영재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영재교육진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2005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예술분야 국가영재교육연구기관이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2001년에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비전과 정책계획을 5년을 주기로 정립하여 실천해왔는데, 여기에는 수학과 과학과 같은 특정 분야를 넘어서 인문사회, 정보,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영재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도 영재교육에서 수·과학 분야가 차지하는 것에 비해 예술분야는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수·과학 영역에만 치우쳐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문제점 해소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갈 예술창의융합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있어 본 연구원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림 I -1]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중장기 발전방향 요약

1) 제1차(2003~2007), 제2차(2008~2012), 제3차(2013~2017), 제4차(2018~2022)

국가 영재교육 정책이 예술분야의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었는가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은 예술영재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항상 개선 방안의 우선 과제로 제시되는 부분이었다. 이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뒤섞인 영재교육 정책의 복잡한 구조와 예술영재교육 현장지원 미비에 대한 지적에 더해, 예술영재교육 연구의 성과들이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면서 현장의 만족감이 저하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은 전국 130여개 예술영재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교원 대상 연수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에 국내외 학술대회 및 워크숍 개최, 지역거점 구축 및 지원, 예술영재발굴캠프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실행하는 한편 국내외 예술영재연구 기관과 관련 학계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내 예술 영재교육의 성과 공유와 위상 제고에 힘써왔다.

무엇보다 본 연구원은 설립초기 예술영재교육정책을 예술영재교육현장에 이식 시키고 현장의 요구를 연구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예술영재교육 체계와 기반을 확립하고 수·과학 영재와 차별화된 예술영재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선발, 판별, 교육과정, 평가, 교사 교육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연극, 영화, 공연예술, 소외영재 등 연구주제를 확대하여 수행함으로써 관련 분야 연구 활성화와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축적된 연구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산·공유할 수 있는 학술적 플랫폼의 필요성에 따라 2019년 4월 30일 국내 유일의 예술영재교육 전문학술지 『예술영재교육』을 창간하였다. 국내외 예술영재교육과 예술교육 분야의 이론과 적용에 관한 기반 연구를 지원하고 인문, 예술, 교육학을 아우르는 혁신적 학문 성과를 나눔으로써 영재 개념의 확장과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의 진전을 도모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안고 창간된 『예술영재교육』은 미래지향적 예술교육을 선도하는 담론의 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0년까지 발간한 학술지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예술영재교육 Journal of Gifted Education in Arts 2019 제1권 예술영재교육의 정책적 실천과 연구 상황에 대한 분석과 성찰 이미경, 김성혜 5 창의, 소통능력개발을 위한 음악영재교육 교과목 개발 - 비서구 음악문화 중심으로 - 김수진 39 창의성 담론과 청소년 예술교육 - 개인에서 지역사회로 - 서윤경 65 청소년영화의 특성에 따른 영화교육의 방향 오세성 89 『예술영재교육』 규정 191	예술영재교육 Journal of Gifted Education in Arts 2019 제2권 무용영재 판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이진효 5 음악영재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안 개발 연구 - 전문가 사전평가를 토대로 신지혜, 김성혜 31 미술 표현에서의 사의(寓意) - 윤두서의 화도론(畫道論)과 자화상의 감상 교재 연구 류지영 57 극장의 공연연계 무용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전망 한지진 87 기획논문 Singapore's Experience in Nurturing Talents in the Arts Tan Liang See 107 『예술영재교육』 규정 131
예술영재교육 Journal of Gifted Education in Arts 2020 제3권 초등미술영재 선발을 위한 미술소양검사의 문항 개발 연구 강병직 5 독일의 무용영재 교육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박현정 41 역사적 고찰을 통한 전통음악 영재교육의 교육방법 제언 권해근 65 연극영재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손서희 85 『예술영재교육』 규정 115	예술영재교육 Journal of Gifted Education in Arts 2020 제4권 예술영재교육기관 컨설팅모형 세안 개발 이경진 5 예술융합영재교육에 관한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인식 및 요구 이승진 31 국내 미술영재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강주희 57 다문화적 합주 지도를 통한 초등학교 예술영재 교육프로그램 연구 손민정, 민승희, 박민혜 77 『예술영재교육』 규정 111

[그림 I-2] 『예술영재교육』 제1권 ~ 제4권 목차

2. 전문학술지 운영 개요

2021년 전문학술지 운영은 1)『예술영재교육』 제5권 및 제6권 발간, 2)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신규평가 신청, 3) 전문학술지 연계 국내 학술대회 개최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가. 『예술영재교육』 제5권 및 제6권 발간

『예술영재교육』은 2019년 4월 창간 이후 매년 2회 발간(4.30, 10.31)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1년에는 제5권과 제6권을 발간했다. 발간 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다.

<표 I -1> 『예술영재교육』 제5권 발간 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2월				3월				4월			
	1	2	3	4	1	2	3	4	1	2	3	4
논문모집공고	●	●	●	●	●	●						
1차심사							●					
편집회의							●					
2차심사								●	●			
1차수정										●		
2차수정											●	
최종편집 및 출판												●

<표 I -2> 『예술영재교육』 제6권 발간 추진 일정

추진내용	일정	8월				9월				10월			
		1	2	3	4	1	2	3	4	1	2	3	4
논문모집공고		●	●	●	●	●	●						
1차심사								●					
편집회의								●					
2차심사									●	●			
1차수정											●		
2차수정												●	
최종편집 및 출판													●

나.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신규평가 신청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신규평가는 2019년에 창간한 『예술영재교육』이 등재 후보학술지에 선정되기 위해 신청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었다. 매년 3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관련 공고가 게시되었으므로, 본 연구원은 2020년 게시 공고와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평가 자료 작성 방안을 기획하였다. 2021년 3월 31일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21년도 학술지평가 신규평가 공고가 게시되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및 자료 우편송부로, ‘신청자격 확인서’, ‘체계평가 자체평가서’, ‘내용평가 설명자료’, ‘논문투고대장(재단용)’, ‘논문투고대장(평가자용)’, ‘투고논문 1차 심사서 일체(스캔본)’, ‘투고논문 1차 심사자 대장’의 총 7개 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이 중 마지막 3개를 제외한 4개 서류에 학술지 인쇄본을 더해 총 5개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이었다. 평가단계 및 배점은 체계평가(정량) 6개 항목에서 총 30점, 내용평가(정성) 7개 항목에서 총 70점으로 구성되었으며, 80점 이상 획득 시 등재후보학술지에 선정된

다. 2021년 5월 4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5월 10일까지 자료 우편송부를 마쳐야 하며, 9월까지의 평가 기간을 거쳐 10월에 평가결과를 발표한다는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자료 제출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하였다. 이상의 일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I -3>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추진 일정

추진내용	일정	3월				4월				5월	10월
		1	2	3	4	1	2	3	4		
20년도 평가항목검토		●	●								
유관기관 자료협조요청			●	●							
평가자료 작성회의					●						
논문투고대장 작성						●	●				
신청자격 확인서작성								●			
체계평가 자체평가서 작성								●			
내용평가 설명자료 작성								●	●		
자료 업로드										●	
자료 우편송부										●	
결과 발표											●

다. 전문학술지 연계 국내 학술대회 개최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은 예술영재교육 분야 연구의 활성화와 학술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학술지 발간과 연계하여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1년 학술대회는 지난 2020년 학술대회의 주제였던 ‘선발’에 이어 ‘프로그램’에 주목하여 기획하였다. 학술대회 제목은 “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혁신을 말하다”로 정했으며, 미술, 음악, 무용 분야 전문가의 발표와 지정 질의로 구성하였다. 코로나 상황을 대비하여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기획되었다. 학술대회 개요 및 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다.

<표 I -4> 2021 KRIGA 국내 학술대회 개요

주 제	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혁신을 말하다
일 시	2021년 9월 3일 (금) 13:00 ~ 16:00
장 소	온라인 개최 (ZOOM)

<표 I -5> 2021 KRIGA 국내 학술대회 추진 일정

추진내용 \ 일정	6월				7월				8월				9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학술대회 주제설정	●	●	●											
발표자 섭외			●	●										
제목초록소개 의뢰					●	●	●							
원고 의뢰						●	●	●	●	●				
일정 및 장소 확정						●								
포스터 제작							●	●	●					
1차 사전 등록									●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2차 사전 등록											●	●		
배경 템플릿 제작 및 전달												●		
자료집 제작											●	●	●	
포스터 출력 및 부착											●			
리허설 1차												●		
리허설 2차													●	
학술대회 개최													●	
사례비 지급														●

II. 전문학술지 『예술영재교육』 발간

1. 『예술영재교육』 제5권, 제6권 발간 개요

2021년에 발간한 제5권(4.30 발행)과 제6권(10.31 발행)은 각각 4편씩의 논문을 게재했다. 제5권은 2월 5일 논문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으며, 3월 15일까지 마감기한을 제시하였다가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3월 22일 논문 모집을 마감하였다. 제6권은 8월 5일 논문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으며, 9월 15일까지 마감기한을 제시하였다가 역시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9월 24일 논문 모집을 마감하였다.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신규평가 자료를 작성하며 보완점으로 제시된 사항들을 모아 제5권 발행과 제6권 발행 사이 학술지 규정 개정이 한 차례 이루어졌다.

제5권의 총 투고 건수는 8건이었다. 이 중 1차 자격 심사에서 2건이 탈락하여 최종 6편의 논문을 각 논문당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였다. 한 심사위원이 두 편까지 심사할 수 있었고, 총 1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에 참여하였다. 이 중 2편은 ‘게재불가’, 4편은 ‘부분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제6권의 총 투고 건수는 6건이었다. 모두 1차 자격 심사를 통과하여 최종 6편의 논문을 각 논문당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였다. 한 심사위원이 두 편까지 심사할 수 있었고, 총 12명의 심사위원이 심사에 참여하였다. 이 중 2편은 ‘게재불가’, 3편은 ‘수정 후 게재’, 1편은 ‘게재가’ 판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2. 『예술영재교육』 제5권 발간 내용

제5권은 총 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목차는 다음과 같다.

예술영재교육	
Journal of Gifted Education in Arts	
2021 제5권	
경남지역 예술영재교육기관 현황 분석 정윤경, 이승진, 남수영	5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의 예술영재교육 한광택	27
예술영재육성 지역확대사업의 중장기 운영 및 발전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심효원	47
융합예술영재교육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방향 탐색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김은양, 송보림, 고흥규	71
『예술영재교육』 규정	107

[그림 II-1] 『예술영재교육』 제5권 목차

가. 경남지역 예술영재교육기관 현황 분석

본 연구는 경남지역 예술영재교육 활성화 및 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맞춤형 컨설팅 수행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경남지역 예술영재교육 전담인력 31명을 대상으로 예술영재교육기관 운영 실태, 예술영재교육 전담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 예술영재교육 전담인력의 연수 및 컨설팅에 대한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는 온라인 설문 형태로 제작된 설문 조사를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발송하여 결과를 취합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예술영재교육기관 향후 컨설팅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학교 예술교육의 심화와 보충과는 다른 예술영재교육의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차별화해야 한다. 둘째, 기관별로 지속 가능한 예술영재교육 비전과 인재상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효과적인 예술영재교육을 위해 지원자와 학습자의 특성 그리고 참여 동기가 무엇인지 매년 파악하여 이를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나.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의 예술영재교육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예술영재교육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모색함으로써 기존 영재교육정책의 전면적인 개정과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인공지능 예술가들의 부상으로 인해 제기되는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검토하고 미래의 예술가들의 역할과 위상을 고찰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예술영재교육의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머니즘의 시대에서 예술, 예술가, 영재 개념의 재정립 가능성과 필요성을 면밀하게 논의하고 기존의 국가주도 예술영재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대안으로서의 미래 예술영재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다. 예술영재육성 지역확대사업의 중장기 운영 및 발전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본 연구는 2020년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시범 사업을 토대로 한 ‘예술영재육성 지역확대사업 운영 및 발전방안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중장기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예술, 음악, 무용, 융합예술 분야로 실행되는 이 사업은 영재교육의 양질화뿐 아니라 수도권으로 집중되었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21세기 융합영재상의 구축 및 육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육과 차별화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 실행, 협력, 보완점 수립으로 항목화한 중장기 계획 모형을 수립한다. 본 사업에서 이러한 중장기적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 교육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기본적인 가치 아래, 지역적 특성의 개별 적용, 교원 프로그램 개발 및 학술적 토대가 될 연구 병행, 그리고 여러 참여 주체와의 조화로운 협력이 동시에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라. 융합예술영재교육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방향 탐색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

본 연구는 융합예술영재교육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방향 탐색을 위한 선행 과정으로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예술융합(arts integration)교육과 스팀(STEAM)교육에서의 교원연수를 살펴보았으며, 조사대상은 3개의 공립 기관 교사교육 프로그램, 2개의 예술기관 단기 교사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2개의 예술가 주도 교사교육 프로그램으로 총 7개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융합예술영재교육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에 있어, 연수 기간별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예술가 또는 예술영재교육 멘토와의 협력 방안 모색, 명확한 연수 참가 목적과 동기부여를 위한 연수대상 선발제의 시범 도입,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 방안 모색, 연수 참여 교원의 핵심 역량 기준 및 성취수준 체계화, 그리고 소외계층 및 학습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예술영재교육』 제6권 발간 내용

제6권은 총 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목차는 다음과 같다.

예술영재교육 Journal of Gifted Education in Arts	2021 제6권
융합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 고찰 - NYU IMPACT 사례를 중심으로 하영미, 김은양	5
미래사회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미술 영재 VR 미술 표현 수업 개발 실행연구 신동진	41
미술 교육 평가의 시각 전환을 위한 탐색과 제언 신지원	65
인공지능 시대, 창의성 개념의 재고찰 김재인	97
『예술영재교육』 규정	121

[그림 II-2] 『예술영재교육』 제6권 목차

가. 융합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 고찰

본 연구는 융합예술교육과 융합예술영재교육의 의의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융합예술교육의 대표적 사례로서 미국 NYU IMPACT 프로그램의 철학, 개발배경 및 변천과정,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영향 및 교육효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IMPACT의 국내 적용사례로서, 대학의 일반교양과목 사례와 Kids IMPACT 프로그램 사례에 대해 각각의 교육일정과 SWOT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요약한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융합예술교육 모델로서 제안하는 IMPACT 프로그램의 국내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초워크숍을 수료한 예술 전공자 대상의 심화집중과정(인큐베이팅)의 개설과 모듈화 제안, 교수진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 연령별, 수준별 평가(분류) 기준안 마련, 융합예술교육 전용공간의 확보와 기자재 지원 및 지속적인 관리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융합예술교육이 예술교육 분야와 더불어 예술영재교육 분야에서도 보다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

나. 미래사회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미술 영재 VR 미술 표현 수업 개발 실행연구

본 연구는 미술 영재를 대상으로 미래사회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을 개발 및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현장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지정 청주교육대학교 부설 미술영재교육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 함양을 위한 VR 미술 표현 수업을 계획 및 적용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차년도 수업에 재투입하였다. 이를 위해 계획, 실행, 관찰, 반성의 순환적 과정의 실천적 실행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프로그램과 앱을 통해 다양한 활용성과 확장성이 있는 VR은 교과 본연의 가치를 학습하는 데에도 유용하지만 교과에 제시되지 않은 가치를 학습하기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다. 미술 교육 평가의 시각 전환을 위한 탐색과 제언

본 연구는 미술 교육 평가의 심층적 논의 확대에 미술 교육 참여자들의 참여와 공유를 제안하기 위한 탐색과 제언이다. 교육평가는 교육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시대적 요구도 수용하면서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다. 그 중에서도 미술 교육 평가는 미술 영역의 주관적, 감성적, 개별적 성격으로 인하여 더욱 난해하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미술 교육 평가의 논의는 그간 마땅한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본 연구는 미술 교육 평가 논의를 개시하기 위하여 교육평가, 학생성취평가, 미술 교육 평가의 역사와 근거한 이론의 배경, 그리고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90년대 이후 학생평가의 기준이 된 수행평가를 비롯하여 여러 평가방법을 비교하고 각 평가의 의의와 한계를 파악하였다. 평가의 방법을 넘어서 평가의 내용과 교육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하여 구성주의 및 전환학습을 살펴보고 미술 교육 평가를 위한 시각 전환을 요구하며 전환학습적 백워드 설계와 평가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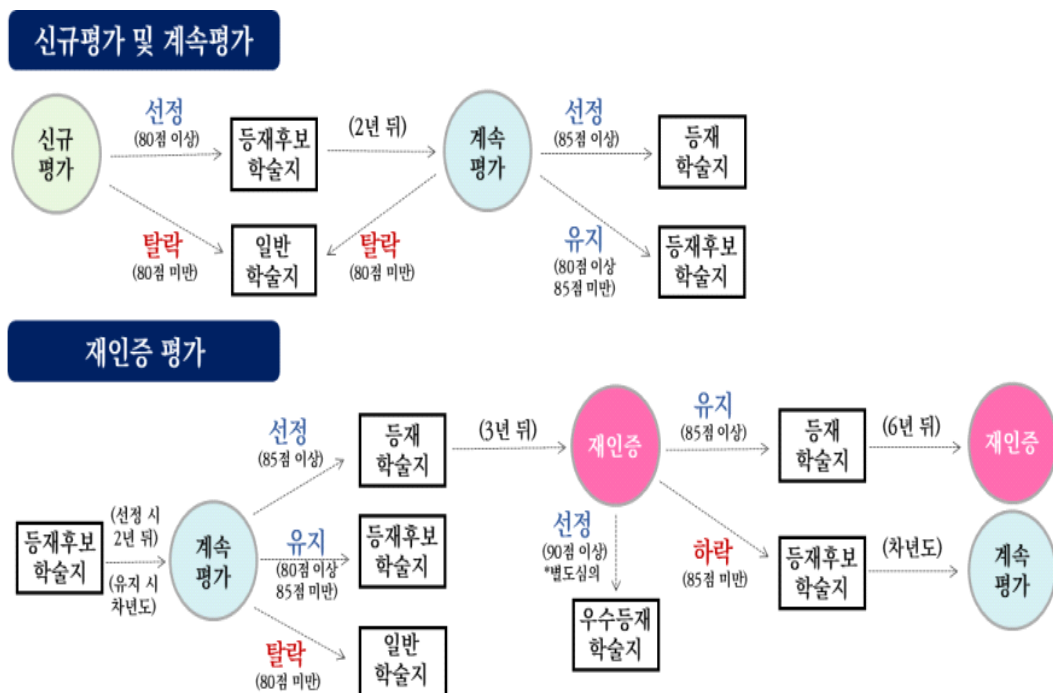
라. 인공지능 시대, 창의성 개념의 재고찰

본 연구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인공지능이 예술 창작의 주체일 수 있느냐는 물음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창의성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의사결정 과정을 인간이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블랙박스’에 비유되곤 하는 인공지능은 19세기 낭만주의 이래의 ‘창작’개념에 맞선 가장 큰 도전이다.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에도 전통적 창의성 개념이 여전히 적용 가능할까? 창의성 개념은 수정되어야 하는 걸까?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 방식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이 물음들을 고생물학·인류학·심리학·교육학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검토하며, 인간이 ‘창의적 협력’능력을 바탕으로 성립하고 존속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다. 창의성은 사회가 높은 자유도를 확보하고, 그 안에서 개별로 또 집단으로 자유롭고 과감한 실험이 이루어질 때 가장 잘 발현되므로, 창의성 교육에서도 개인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Ⅲ.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신규평가 신청

1.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신규평가 신청 개요

한국연구재단은 국내 발간 학술지를 대상으로 매년 학술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학술지의 관리체계 확보를 통해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 유도’,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경쟁력 제고 및 연구성과의 공유 활성화’, ‘국내 우수 학술지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본 학술지평가는 미등재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평가와 등재후보·등재·우수등재학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계속평가 및 재인증평가로 이루어진다. 평가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III-1]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평가체계

국내 유일의 예술영재교육 전문학술지로서 국내외 예술영재교육과 예술교육 분야의 이론 및 적용에 관한 기반 연구를 지원하고, 인문·예술·교육학을 아우르는 혁신적 학문 성과를 나눔으로써 영재 개념의 확장과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의 진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예술영재교육』은 창간 당시부터 등재지 선정을 목표로 하였다. 2019년에 창간하여 매년 2회씩(4월, 10월) 총 4회 발간한 『예술영재교육』은 2021년 학술지평가 신규평가 신청자격의 ‘유형 2(신청직전 2년간 매년 2회 이상 발간 학술지)’를 충족하였기에 예년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자료를 준비하였다.

2.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신규평가 신청 내용

가. 신청자격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는 신청자격 및 체계평가(정량)에 대한 재단의 자체평가, 그리고 내용평가(정성)에 대한 전문평가단의 온라인평가를 거친다. 신청자격은 ‘발행의 규칙성 및 정시성’, ‘논문당 심사위원수’, ‘연구윤리’, ‘논문 투고 다양성’, ‘학술지 기본체계 구축’ 등 총 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개 항목을 모두 패스해야 신청자격이 충족된다. 첫 번째 항목인 ‘발행의 규칙성 및 정시성’의 경우, 『예술영재교육』은 직전 2년간 매년 최소 2회 이상 발간했으며, 발행규정에 명시된 발행횟수와 발행일을 오차 없이 준수하여 패스에 해당하였다. 두 번째 항목인 ‘논문당 심사위원수’의 경우, 논문당 심사위원이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였다. 세 번째 항목인 ‘연구윤리’의 경우, 연구윤리 규정을 창간호부터 규정하여 적용하였으며,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전체 공개함으로써 조건을 충족하였다. 네 번째 항목인 ‘논문 투고 다양성’의 경우, 전체 논문 투고자 35명 중 가장 많은 투고자가 속한 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5명)는 14.3%를 차지하여 동일한 기관의 논문투고건 비율이 2/5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했다. 마지막 항목인 ‘학술지 기본체계 구축’은 총 5개 세부요건 중 4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예술영재교육』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발행기관 및 학술지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것, 평가대상 기간에 발행된 학술지 논문의 논문명과 저자명이 모두 로마자로 표기되어 있을 것, 발행규정에 발행일이 연, 월, 일까지 모두 명시되어 있을 것, 학술지 투고규정에 저작권 활용동의 절차 및 권한명세가 제시되어 있을 것, 국립중앙도서관 학술지 저작권 안내 시스템(KJCI)에 저작권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것 등 5개 세부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신청자격 확인서

구 분	항 목	세 부 요 건	충족여부
신청 자격	발행의 규칙성 및 정시성	직전 2년간 매년 최소 2회 이상 발간했을 것	PASS
		발행규정에 발행일이 명시되어 있을 것	PASS
		발행규정에 명시된 발행횟수를 직전 2년간 준수했을 것 (학술지 판권란 기준)	PASS
		직전 2년간 발행한 학술지의 규정상 발행일과 실제 발행일간 평균오차가 21일 미만일 것 (학술지 판권란 기준)	PASS
	논문당 심사위원수	논문당 심사위원이 최소 2명 이상일 것	PASS
	연구윤리	연구윤리 규정을 신청 직전년도 말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을 것	PASS
		연구윤리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체 공개하고 있을 것	PASS
	논문 투고 다양성	전체 논문투고건(국외 포함) 중 동일한 기관의 논문투고건 비율이 2/5 이하일 것	PASS
	학술지 기본체계 구축	총 5개 세부요건 중 4개 이상을 충족할 것	PASS
	최종 신청자격 충족여부		PASS

나. 체계평가

체계평가(정량)는 ‘연간 학술지 발간횟수’(4점), ‘학술지 및 수록 논문의 온라인 접근성’(13점), ‘주제어 및 논문 초록의 외국어화’(3점), ‘게재 논문의 투고(접수), 심사(수정), 게재확정일자 기재’(3점), ‘논문 게재율’(5점), ‘편집위원장의 안정성’(2점) 등 총 6개 항목 30점 만점의 정량평가로 이루어진다. 체계평가 만점의 70% 미만(21점 미만)일 경우 총점(체계+내용)에 관계 없이 탈락조치되며, 2번, 3번, 4번 항목 중 하나라도 0점일 경우 역시 총점에 관계 없이 탈락조치된다.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 점수를 제출하여 재단에서 검토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항목인 ‘연간 학술지 발간횟수’의 경우, 연간 학술지 발간 2회 이상 ~ 3회 미만에 해당하여 4점 만점에 3점으로 평가했다. 두 번째 항목인 ‘학술지 및 수록 논문의 온라인 접근성’의 경우, 논문 원문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창간호부터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13점 만점에 13점으로 평가했다. 세 번째 항목인 ‘주제어 및 논문 초록의 외국어화’의 경우, 게재 논문 대비 주제어 및 초록의 외국어화 비율이 100%인 경우에 해당하여 3점 만점에 3점으로 평가했다. 네 번째 항목인 ‘게재논문의 투고(접수), 심사(수정), 게재확정일자 기재’의 경우, 위 내용이 모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여 3점 만점에 3점으로 평가했다. 다섯 번째 항목인 ‘논문 게재율’의 경우, 총 투고 논문 35건 대비 게재 논문 수는 17건으로(게재율 48.6%), 게재율이 7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5점 만점에 5점으로 평가했다. 마지막 항목인 ‘편집위원장의 안정성’의 경우, 편집위원장의 규정상 임기 및 최근 5년간 실제 평균 임기가 2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2점 만점에 2점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체계평가의 자체평가 점수는 30점 만점에 29점이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2>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체계평가 자체평가서

구 분	항 목	배 점	자체평가 점수
체계평가 (정량)	1. 연간 학술지 발간횟수	4	3
	2. 학술지 및 수록 논문의 온라인 접근성	13	13
	3. 주제어 및 논문 초록의 외국어화	3	3
	4. 게재 논문의 투고(접수), 심사(수정), 게재확정일자 기재	3	3
	5. 논문 게재율	5	5
	6. 편집위원장의 안정성	2	2
총 6개 항목		30	29

다. 내용평가

내용평가(정성)는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20점), ‘편집위원회의 전문성’(15점), ‘논문집의 구성과 체제의 완전성 및 가독성’(10점), ‘투고논문 심사제도의 구체성 및 엄정성’(15점), ‘논문 초록의 질적 수준’(5점), ‘연구(출판)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5점) 등 6개 항목과 가점 항목인 ‘학문분야 특수성의 학술적 가치’(최대 3점)로 구성되며 총 70점 만점이다. 신청기관이 작성한 내용평가 설명자료를 전문가평가단이 평가하는데, 평가는 세부지표에 따른 등급을 통해 해당 점수를 종합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항목인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의 세부지표로는 ‘해당 학문분야에서의 인지도 및 활용도’(4점), ‘게재된 논문의 학문적 가치’(8점), ‘게재된 논문의 학술지 주제와의 부합도’(4점), ‘학술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활동’(4점)이 있다. 『예술영재교육』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 및 성과를 서술함에 있어 특히 국내 유일의 예술분야 국가영재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KRIGA의 가치와 국내 유일의 예술영재교육 전문학술지로서의 위상을 강조하였으며, 게재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요약함으로써 학문적 가치 및 학술지 주제와의 부합도를 부각하

였다. 또한 학술지와 연계한 학술대회 개최 성과를 요약하였다.

두 번째 항목인 ‘편집위원회의 전문성’의 세부지표로는 ‘편집위원장의 연구업적과 학문적 수월성’(3점), ‘편집위원의 연구업적과 학문적 수월성’(3점), ‘편집위원(장)의 학술활동의 적극성’(5점), ‘편집위원(장)의 전체적 구성(전공, 소속기관 등)’(2점),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2점)이 있다. 편집위원장 포함 총 17인의 편집위원의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편집위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학술활동이 활발하고 성과가 높으며 동시에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적합함을 강조하였으며, 그 외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음을 부각하였다.

세 번째 항목인 ‘논문집의 구성과 체제의 완전성 및 가독성’의 세부지표로는 ‘논문집의 구성과 체제의 완전성’(4점), ‘게재된 논문의 가독성’(4점),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과 직위 표기의 명확성’(2점)이 있다. 『예술영재교육』의 목차를 차례대로 제시하여 구성 체제의 일관성과 가독성을 강조하였고, 투고규정과 편집과정을 통해 저자 소속기관 및 직위 표기는 물론 참고문헌과 각주 등 서지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부각하였다.

네 번째 항목인 ‘투고논문 심사제도의 구체성 및 엄정성’의 세부지표로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 시스템 도입과 활용’(2점), ‘투고규정에서 저작권 활용동의 절차 및 권한명세의 적절한 제시’(2점), ‘투고규정에서 적정 초록 길이의 적절한 제시’(1점), ‘심사규정(심사자 선정, 투고 논문 심사, 이의신청 절차, 평가의견 등)의 명확성’(2점), ‘심사서 내용 등의 적절성’(8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함께 제출한 투고논문 1차 심사서와 심사자 대장을 통해 심사 절차의 엄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심사규정과 연구윤리규정에서 심사제도를 구체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부각하였다.

다섯 번째 항목인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의 세부지표로는 ‘논문 초록의 요약 우수성’(3점), ‘논문 초록의 외국어화 우수성’(2점)이 있다. 창간호부터 모든 게재 논문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함께 수록하고 있으며, 편집규정을 통해 초록 길이를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편집위원회에서 직접 원어민 감수를 진행하여 저자에게 감수본의 반영 및 수정을 요청하여 논문초록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부각하였다.

마지막 항목인 ‘연구(출판)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의 세부지표로는 ‘연구(출판)윤리 관련 규정의 적절성’(2점), ‘연구(출판)윤리 준수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실제적 활동’(3점)이 있다. 관련 규정과 투고논문 1차 심사서 및 심사자 대장을 통해 평가하며, 이 항목에서 2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0점을 부과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점에 관계없이 탈락으로 처리한다. 연구윤리규정을 통해 연구부정행위의 정의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연구윤리위원회 심의회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 특히 2019년 9월 개최한 연구윤리위원회 사례를 통해 연구윤리 준수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실제적 활동을 강조하였다.

가점 항목인 ‘학문분야 특수성의 학술적 가치’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예술영재교육의 현황을 제시함으로써 예술영재교육을 총괄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KRIGA의 역할을 강조하고, 학술지를 연구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나아가 예술영재교육 분야의 학술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KRIGA의 성과를 국제 심포지엄과 지역확대사업 등의 사례로 제시하였다. 항목별 배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3>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내용평가 항목별 배점

구 분	항 목	배 점
내용 평가 (정성)	1.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20
	2. 편집위원회의 전문성	15
	3. 논문집의 구성과 체제의 완전성 및 가독성	10
	4. 투고논문 심사제도의 구체성 및 엄정성	15
	5. 논문 초록의 질적 수준	5
	6. 연구(출판)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5
	6개 항목	70
	(가점) 항목분야 특수성의 학술적 가치	최대3점
계		100

3.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신규평가 신청 결과

가. 신청 결과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결과는 2021년 10월 29일 공개되었다. 『예술영재교육』은 최종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8.12점으로 등재후보학술지에 선정되었다. 평가 세부 점수는 다음과 같다.

<표 III-4>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신규평가 세부 점수

구 분	항 목	배 점	득 점
체계평가 (정량)	1. 연간 학술지 발간횟수	4	3
	2. 학술지 및 수록 논문의 온라인 접근성	13	13
	3. 주제어 및 논문 초록의 외국어화	3	4
	4. 게재논문의 투고(접수), 심사(수정), 게재확정일자 기재	3	4
	5. 논문게재율	5	5
	6. 편집위원장의 안정성	2	2
	6개 항목	30	29
내용평가 (정성)	1.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20	16.16
	2. 편집위원회의 전문성	15	12.84
	3. 논문집의 구성과 체제의 완전성 및 가독성	10	8.76
	4. 투고논문 심사제도의 구체성 및 엄정성	15	12.36
	5. 논문 초록의 질적 수준	5	4.26
	6. 연구(출판)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5	4.74
	6개 항목	70	59.12
	(가점) 항목분야 특수성의 학술적 가치	최대3점	0
계		100	88.12

내용평가는 총 5인의 전문가평가로 진행되었으며, 각 항목별 평가 기준에 따른 등급을 매기고 서술형 의견을 제시했다. 각 평가자별 의견 원문은 아래와 같다.

1) 평가자 1

본 학술지 (예술영재교육)은 국가 영재교육 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반성과 제안이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21세기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인간 교육에서 예술과 예술적 경험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의식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교육이 아니라 ‘예술영재교육’ 개념은 하나의 전문 학술지를 대변하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한 개념입니다. 또한 주지하듯이 ‘영재’라는 개념도 일반성과 보편성이 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 역사, 기술, 문명의 조건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학술지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념과 지향점을 좀 더 객관적이며 보편적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재의 범위를 음악, 무용,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연극, 영상, 융합 등의 분야로 확장한다고 서술했지만, 투고된 논문들의 주제를 보면 음악과 무용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편집위원회 구성에서도 여러 예술 분야 가운데 음악 분야에 치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2) 평가자 2

본 학술지는 예술영재 판별 및 선발 모형 개발부터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 국가 예술영재교육의 정책적 실천 및 교육기관 컨설팅까지 포괄적인 예술영재교육 관련 연구 생산에 의의가 있다. 기존 예술영재교육의 중심이었던 음악, 무용, 미술 분야의 세분화는 물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창의 인재교육으로 연극, 영상, 융합 등의 새로운 분야 탐구로도 확장되었다. 국내 외 예술영재교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논문이 드문 것을 감안하면 나름의 학문적 가치 및 학술지 주제와의 부합도가 있다고 사료된다.

3) 평가자 3

예술영재교육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예술영재교육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예술영재 프로그램, 교육과정, 평가모형, 등을 주제로 한 연구를 수행뿐만 아니라 국내외 예술영재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국내외 예술영재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영재교육의 발전에 이바지 해야할 것이다.

4) 평가자 4

본 예술영재교육은 예술영재교육기관의 질적 관리를 위해 학술대회 및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실행하여 국내외 예술영재교육의 위상 제고에 힘쓰고 있는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입니다. 내용평가 설명자료에 따르면 예술영재교육 정책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질적 평가 모델을 개발하기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영재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지적사항을 밝히는 바입니다.

교육프로그램 개발, 질적 평가 모델 구축, 교육 정책을 추구한다는 학문적 가치에 비해 관련 분야의 세부 전공 편집위원을 확인할 수 없음.

온라인 투고 시스템 운영사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구축계획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음.

5) 평가자 5

과거에 비해 현재의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많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비해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가 낮아 아쉽습니다. 또한,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됩니다.

논문집 구성과 체제의 완전성과 가독성을 위해 오타자 확인은 물론 논문 초록의 글자 수 제한 및 각 호에 적용, 내용의 수준등의 확인 필요합니다. 특히, 연구물의 내용 길이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투고논문에 대한 논문 심사 평가서의 등급과 이에 따른 심사결과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향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학술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향후 개선 방안

『예술영재교육』이 2021년 학술지평가 신규평가에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됨에 따라, 2023년부터 계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2023년 계속평가의 평가대상 기간은 신청직전 1년분으로 2022년에 발간될 제7권과 제8권이다. 2023년 계속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받게 되면 등재학술지로 선정된다. 80점 이상 85점 미만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80점 미만은 등재후보학술지 탈락이다. 신규평가와 계속평가는 평가항목에서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으며, 이번 신규평가에서 받은 지적 사항을 개선

하여 2023년 계속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이 요구된다.

첫째, 학술지를 연 2회 발간에서 연 3회 발간으로 변경하여 체계평가에서 만점을 유도할 수 있다. 제7권의 투고 건수 등을 보고 연 3회 발간이 가능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게재 논문 분량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논문 초록 글자 수 및 연구물 분량에 관해 현재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투고자에게 보다 명확히 안내하여 준수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술과 음악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편집위원의 연구 분야를 확장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신규 위촉하여 다양성을 높이고, 편집위원회 활동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게재 논문의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등재후보지 선정 소식과 투고 및 게재료 무료를 강조하여 논문 모집 홍보에 힘쓰고, 학술대회나 전문가 토론회 등과 연계하여 게재 논문 저자들의 논문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개별 심사서의 등급과 최종 심사 결과와의 연결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 판정 기준을 현재의 등급에서 점수로 바꿀지 논의가 필요하다.

IV. 전문학술지 연계 국내 학술대회 개최

1. 국내 학술대회 기획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은 예술영재교육 분야 연구의 활성화와 학술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학술지 발간과 연계하여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1년 학술대회는 지난 2020년 학술대회의 주제였던 ‘선발’에 이어 ‘프로그램’에 주목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상황 속에서, 대면 수업 중심의 예술 교육 현장의 한계와 비대면 수업의 단점을 보완하여 다가올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합한 혁신적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필요한 미술, 음악, 무용 분야의 분야별 언택트 수업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예술영재교육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기획하였다.

학술대회 제목은 “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혁신을 말하다”로 정했으며, 미술, 음악, 무용 분야 전문가의 발표와 지정 질의로 구성하였다. 코로나 상황을 대비하여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기획되었다. 개최 예정일(9/3 금) 일주일 전까지 구글 설문 폼을 통해 사전 등록을 받았고, 사전 등록 시 제출한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로 ZOOM 링크를 전달하였다. 학술대회 개요 및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표 IV-1> 2021 KRIGA 국내 학술대회 개요

주 제	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혁신을 말하다
일 시	2021년 9월 3일 (금) 13:00 ~ 16:00
장 소	온라인 개최 (ZOOM)

<표 IV-2> 2021 KRIGA 국내 학술대회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발표자
13:00 ~ 13:10	환영사	
13:10 ~ 13:40 (30분)	발표 1 (미술분야) VR을 이용한 미술영재수업과 그 가능성에 대한 소고	신동진 (청주교대 미술영재교육원)
13:40 ~ 14:00 (20분)	질의 1	류지영 (춘천교대 미술교육과)
14:00 ~ 14:30 (30분)	발표 2 (음악분야)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음악교육	권수미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14:30 ~ 14:50 (20분)	질의 2	정윤정 (광주교대 음악교육과)
15:00 ~ 15:30 (30분)	발표 3 (무용분야) 트랜스미디어와 비대면 무용교육	고현정 (전북대 무용학과)
15:30 ~ 15:50 (20분)	질의 3	김율리아 (이화여대 문화예술교육원)
15:50 ~ 16:00	폐회사	

2. 국내 학술대회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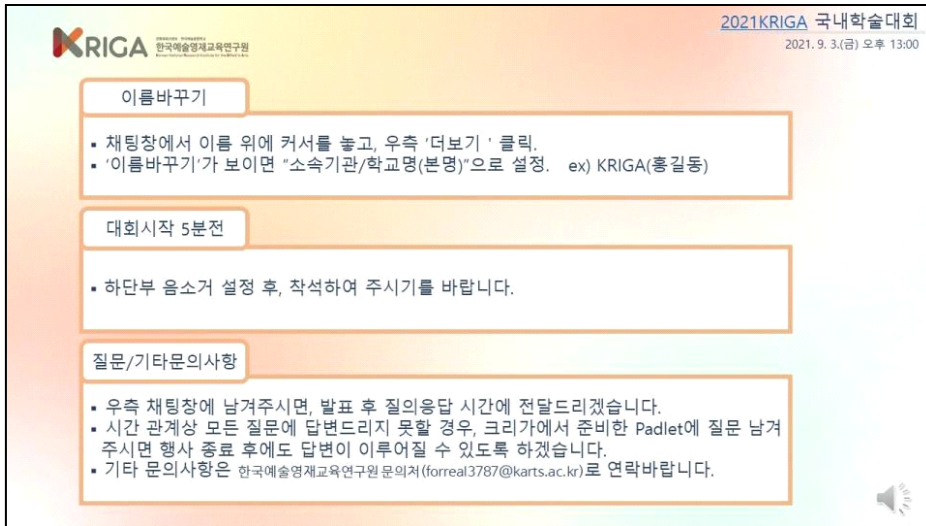
국내 학술대회 당일에는 사회자와 운영자, 운영보조원 총 3명의 긴밀한 협조 속에 기획된 세부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 요약과 자료 화면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가. 학술대회 시작 전 안내

학술대회는 9/3(금)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며, 시작 1시간 전부터 ZOOM 회의를 개설하여 안내 페이지를 띄워놓았다. 안내 페이지는 총 3페이지로 구성하였는데, 전체 일정표([그림 IV-1]), 채팅 참여를 위한 이름바꾸기 등 참여자 안내([그림 IV-2]), 대회 종료 후 추가 Q&A를 진행할 구글 Padlet 안내([그림 IV-3]) 등이다.

		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혁신을 말한다 2021. 09. 03 (금) 13:00 ~ 16:00		주최 :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사전 등록 : 2021년 8월 16일까지(등록비 무료) 등록 방법 : QR코드 및 https://forms.gle/AppjGh4PonmmkUue8 기타 문의 : forreal3787@karts.ac.kr		
13:00 - 13:10	환영사	KRIGA 원장		
13:10 - 13:40	발표 1 (미술분야)	신동진 (충주교대 무설 미술영재교육원 강사)		
		VR을 이용한 미술영재수업과 그 가능성에 대한 소고		
13:40 - 14:00	질의 1	류지영 (충천교대 미술교육과 교수)		
14:00 - 14:30	발표 2 (음악분야)	권수미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교수)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음악교육		
14:30 - 14:50	질의 2	정윤영 (광주교대 음악교육과 강사)		
15:00 - 15:30	발표 3 (무용분야)	고현영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		
		트랜스미디어시와 비대면 무용교육		
15:30 - 15:50	질의 3	김율리 (이화여대 문학예술교육원 강사)		
15:50 - 16:00	폐회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KRIGA

[그림 IV-1] 2021 KRIGA 국내 학술대회 전체 일정표 안내



[그림 IV-2] 2021 KRIGA 국내 학술대회 참여자 안내



[그림 IV-3] 2021 KRIGA 국내 학술대회 추가 Q&A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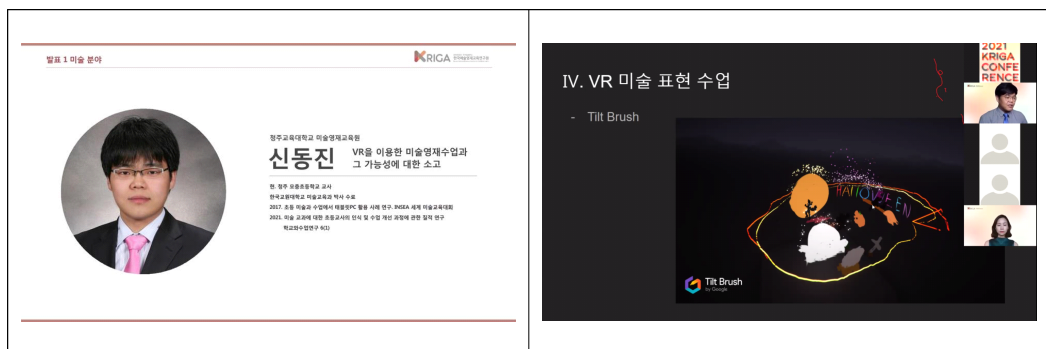
나. VR을 이용한 미술영재수업과 그 가능성에 대한 소고

신동진 | 청주교대 부설 미술영재교육원 강사

청주교육대학교 부설 미술영재교육원, 청주 모충초등학교의 신동진 교사는 지난 2019년부터 미술영재교육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VR(Virtual Reality) 미술 표현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전통적 미술 표현 수업과의 비교를 통해 VR을 활용한 미술영재수업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2019년과 2020년 2번에 걸쳐 VR 미술 표현 수업을 기획 및 진행한 경험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발표였다. 다양한 VR 기기들의 특성 및 교육 활용 시 장단점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업 운영 시 발생했던 문제점 및 개선 방향까지 충실하게 제시함으로써 실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다.

전통적 미술 표현 수업 방법과 비교했을 때 VR 미술 표현 수업의 가능성으로는, 공간의 초월성과 현존감을 통해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학습자의 흥미에 부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물성 체험이 힘들다는 점, 기기 구입 및 관리에 부담이 있다는 점, 교수자의 콘텐츠 활용 능력 함양이 필요한 점 등의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관계 부처에서 비품 구입 및 유지·보수를 지원해줄 것,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투자에 나서줄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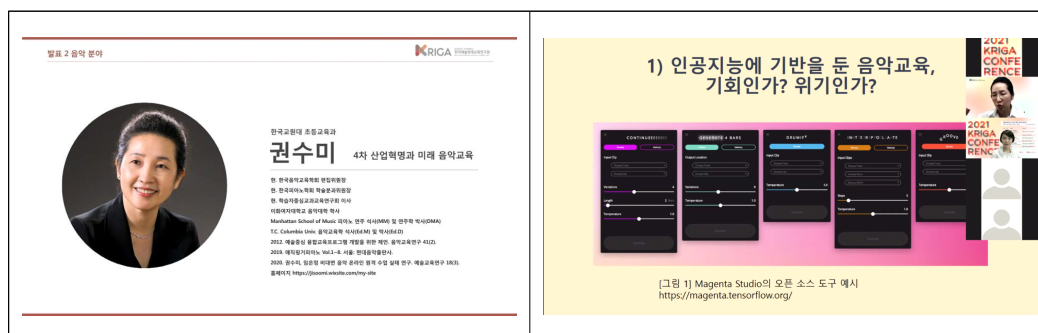
[그림 IV-4] 2021 KRIGA 국내 학술대회 발표 1 (미술 분야)

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음악교육

권수미 |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권수미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음악 교육계가 당면한 과제를 지난 세 차례의 산업혁명에 따른 음악계에서의 매체 변화와 함께 고찰했다. 나아가 최근 음악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음악교육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다섯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이어갔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음악교육은 인간의 예술 창작 활동의 반경을 넓혀주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동시에 그동안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믿음 체계를 혼란시키며 새로운 철학적 기제의 정립을 요구할 것이다. 둘째, VR과 AR을 활용하여 가상환경에서 3차원의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면, 현실 세계에 대한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충분한 몰입이 가능한 학습 환경 안에서 효율적인 음악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기술이 음악교육에서 활용될 경우 학생 개개인에 최적화된 맞춤형 음악 학습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넷째, 디지털 시대 삶의 필수 요건으로 간주되는 디지털 문해력 역시 음악교육 분야에 포괄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음악적 지식과 기술을 보다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인간다움을 지키는 음악교육이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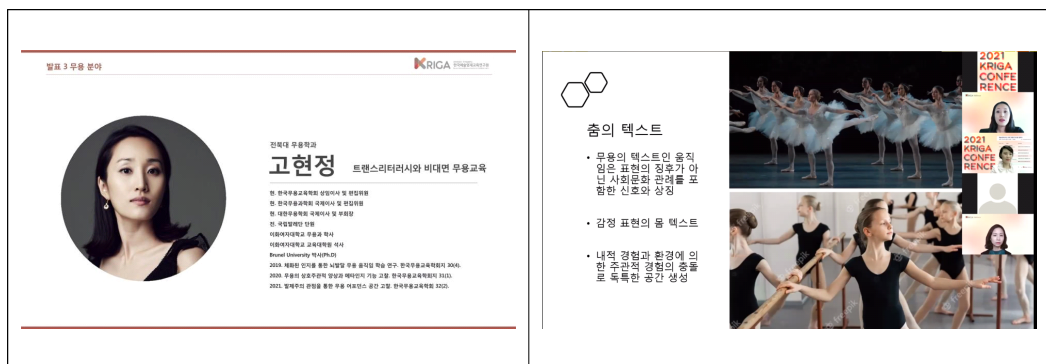
[그림 IV-5] 2021 KRIGA 국내 학술대회 발표 2 (음악 분야)

라. 트랜스리터러시와 비대면 무용교육

고현정 |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고현정 교수는 현재의 교육이 외워서 획득하는 지식의 형태보다는 ‘앎’으로의 수행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보사회의 이해를 위해 리터러시는 사회적 변형을 읽고 학습자가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가 급격해진 동시대에 예술교육은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음을 던지며 발표를 이어갔다.

이러한 고찰 속에서 고현정 교수는 디지털 컨버전스로 표현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상호작용하는 능력인 트랜스리터러시 개념을 몸과 무용 교육으로 확장했다. University of Paris-Saclay의 Sarah Alaoui Fdili 교수와의 비대면 국제교류 수업을 사례로 제시하며, 트랜스리터러시를 활용한 무용수 몸 텍스트화 수업이 갖는 함의를 비대면 교육에서의 창의성 발휘의 측면에서 진단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그림 IV-6] 2021 KRIGA 국내 학술대회 발표 3 (무용 분야)

V. 결론 및 제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이 발간하는 『예술영재교육』은 국내 유일의 예술영재교육 분야 전문학술지로서, 2021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신규평가 결과 창간 2년 만에 등재후보학술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예술영재교육 분야의 특수성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인문, 예술, 교육학의 혁신적 연구들을 매개할 수 있는 본 학술지의 가능성에 주목한 결과라 할 것이다. 전문적인 영재교육이론과 국내 현실을 접목한 예술영재교육의 기틀을 정립하고 창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예술영재교육』은 본 연구원의 핵심 사업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다.

2021년에 발행한 『예술영재교육』 제5권과 제6권은 인공지능과 VR, 융합예술 등 시대적 화두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연구는 물론, 예술영재교육의 지역 확대와 교육 평가의 방향성과 같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선도적으로 질문을 제기하는 연구들로 풍성하게 채워졌다. 또한 2021년 9월 3일(금)에는 학술지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고 학술 네트워크를 조직하기 위해 학술지 발간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KRIGA 국내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프로그램’에 주목한 이번 학술대회는 예술교육의 비대면 운영 상황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이를 예술영재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고, 2023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계속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등재학술지에 선정되기 위해서 아래의 내용이 요구된다.

첫째, 학술사업의 홍보와 학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홈페이지 관리의 개선 및 현재 개발 중인 정보화 플랫폼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창간 2년 만에 등재후보학술지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신생·소외 학문인 예술영재교육 전문학술지로서 『예술영재교육』의 인지도는 아직 다소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예술영재교육 전문학술지라는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인문학, 미학, 교육학을 아우르며 영재성, 예술, 교육에 대한 개념의 확장을 유

도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SNS 홍보를 포함하는 홈페이지 관리 개선 및 정보화 플랫폼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편집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활동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현재 17인의 편집위원 구성은 미술과 음악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재성 개념을 확장하여 4차산업을 선도할 미래 창의융합인재의 발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미술과 음악과 같은 전통적 예술영재 분야 뿐 아니라, 융합, 인공지능, 인문, 교육,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세부 전공 편집위원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정기 비대면 편집위원회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편집위원회의 활동도 더 다양한 주제의 회의를 기획하여 학술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

셋째, 학술사업을 국내 학술대회 정기 개최에 더해 세미나, 특강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학술지 게재 논문의 활용도 및 다양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예술영재교육이 자칫 하나의 전문학술지를 대변하기에 지나치게 협소한 개념으로 고착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통적 예술영재 분야를 넘어서는 연극, 영상, 융합 분야를 포함하고, 나아가 사회, 역사, 기술, 문명의 조건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영재성 개념의 고찰로 주제 의식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실무자들의 연구 발표와 특강을 기획함으로써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학계와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학술지 게재 논문의 활용도 및 투고자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19-2021). **예술영재교육, 1-6.**

이승진 (2020).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웹사이트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https://ged.kedi.re.kr/index.do> (검색일: 2022. 3. 19)

2021 예술영재교육 전문학술지 운영 결과보고서

발행인	조 주 현
발행일	2022년 2월
발행처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홈페이지	http://kriga.karts.ac.kr/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 화	02-746-9537
인 쇄	(주) 계 문 사(02-725-5216)
I S B N	979-11-85119-82-3 93370

※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에 있습니다.
이 출판물에 실린 모든 내용은 필자와 저작자에게 있으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